

광주FC 4연승은 실패했지만 4경기 연속 무패

광주FC의 K리그 첫 4연승 도전이 아쉬운 실패로 끝났다. 기록은 이루지 못했지만 광주는 신예들의 활약 속에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었다.

광주는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의 K리그 2021 29라운드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2-1로 앞선 후반 12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놓쳤지만 고졸 2년 차 허율이 머리로 프로 데뷔골을 만들었고, '루키' 엄지성은 프로 첫 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 미래를 밝혔다.

지난 8월 24일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3연승을 찍은 뒤 A매치 휴식기를 보냈던 광주는 'K리그 첫 4연승'을 목표로 적지로 향했다.

상대의 강한 공세가 펼쳐지면서 광주가 경기 초반 어려움을 겪었다.

'3연승의 주역' 골키퍼 윤병국이 전반 17분 나온 이기재의 매서운 슈팅을 막아내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그리고 전반 21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다투던 광주의 공격이 이뤄졌다. 이순민이 먼 거리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어렵게 상대 골키퍼 양형모에게 막혔다.

전반 30분에는 알렉스가 좋은 수비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수원삼성과 2-2 무승부

고졸 2년 차 허율 데뷔골

루키 엄지성 첫 도움 기록

신예들 활약에 광주 미래 밝아

수원 정상빈이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보낸 공이 광주 수비수 이찬동 발에 맞으면서 자책골이 되는 것 같았다. 문전에 있던 알렉스가 급히 공을 쳐내면서 광주가 실점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후반 41분 한석중이 중원에서 찔러준 공을 잡은 정상빈의 오른발 슈팅에 광주가 선취점을 내줬다. 골키퍼 윤병국이 손을 뻗었지만, 손에 맞은 공이 그대로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후반 5분 광주 허율이 기다렸던 프로 첫 골을 장식했다.

이때쯤이 왼발로 띄운 프리킥을 허율이 뛰어올라 머리로 터쳤다. 공이 수원 골대 왼쪽을 파고들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8분에는 '루키' 엄지성이 프로 첫 도움을 올렸다.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를 몰고 질주하던 엄지성이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김주공이 머리로 골대 왼쪽 상단을 뚫으면서 2-1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목표했던 4연승에는 한걸음이 부족했다.

후반 12분 상대의 코너킥 상황에서 이기재가 키퍼로 나서 공을 띄웠고, 민상기가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두 팀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추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2-2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광주 김호영 감독은 "전반전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후반전에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전반전 선제 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후반 시작하면서 이희균과 엄지성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고, 득점을 만들어 냈다. 전체적인 경기내용은 만족하고, 선수들이 힘든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줬다.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팬들에게 4연승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어렵고 죄송하다.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추석 연휴 기간 안방에서 두 경기를 치른다.

18일 오후 4시 30분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하고, 21일 오후 4시 30분에는 전북 현대를 만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허율이 11일 수원과의 원정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19세 라두카누 메이저 우승컵 품다

US오픈테니스 10대 돌풍 완성 동갑내기 페르난데스 2-0 제압 메이저 첫 예선 통과자가 우승

에마 라두카누(150위·영국)가 레일라 페르난데스(73위·캐나다)와의 '10대 대결'에서 승리하며 생애 첫 테니스 메이저 대회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라두카누는 12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1시간 51분 만에 2002년생 동갑내기 페르난데스를 2-0(6-4 6-3)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라두카누는 1999년 대회 세리나 윌리엄스(17세 11개월)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US오픈에서 우승하는 기록을 썼다.

또 2004년 윌블던 결승에 올랐던 마리아 샤라포바(17세) 이후 최연소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우승자가 됐다.

라두카누는 메이저 대회 남녀 단식을 통틀어 처음으로 예선 통과자가 우승까지 차지하는 기록도 세웠다. 특히 예선 3경기과 본선 7경기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무실세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월 끝난 윌블던에서 처음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해 4회전까지 올랐던 라두카누는 바로 다음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새 '테니스 여제'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여제' 윌리엄스(22위·미국)가 2017년 호주오픈에서 마지막 메이저 단식 우승을 한 뒤 17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12명의 선수가 돌아가며 정상에 서는 등 여자 테니스에서는 '춘추전국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것은 1977년 윌블던에서 버지니아 웨이드(76·은퇴) 이래 44년 만이다.

라두카누는 우승 상금 250만달러(약 29억2500만원)를 받아 돈방석에 앉았다. 이전까지 라두카누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은 30만3376달러(약 3억5500만원)로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의 8분의 1도 안 된다.

3회전에서 오사카 나옴이(3위·일본), 16강에서



19세 신예 에마 라두카누(150위·영국)가 12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동갑내기 레일라 페르난데스(73위·캐나다)를 2-0(6-4 6-3)으로 물리친 뒤 우승 트로피를 안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젤리크 케르버(17위·독일)를 연파했고 준결승 엘리나 스비톨리나(5위·우크라이나), 아리나 사비렌카(2위·벨라루스) 등 '톱5' 선수 가운데 세

명을 제압하고 결승까지 오른 페르난데스는 동갑내기 라두카누를 넘지 못해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연합뉴스

황희찬 '데뷔골' EPL 올버햄프턴 2-0 승리 기여

'황소' 황희찬(올버햄프턴)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다.

황희찬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왓퍼드의 비커리로드에서 끝난 왓퍼드와 2021-2022시즌 EPL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8분 올버햄프턴 원더러스의 2-0 승리에 쐐기를 박는 득점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올버햄프턴으로 임대 이적한 황희찬은 이날 데뷔전부터 마수없이 득점을 신고해 브루노 라즈 감독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받았다.

유럽 정규리그 골 침묵도 1년 3개월 만에 깬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2019-2020시즌 11골을 넣었던 황희찬은 2020-202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뒤 주전 경쟁에서 밀려 좀처럼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 시즌 독일 무대에서 황희찬은 컵대회에서만 3골을 넣었을 뿐, 정규리그에서는 무득점에 그

쳤다.

그랬던 황희찬이 EPL에서는 일찍 득점포를 가동해 연착륙을 예고했다. 개막 3연패 중이던 올버햄프턴은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황희찬은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18분 프란시스코 트린강과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밟았다.

후반 29분 프란시스코 시에랄타의 자책골로 올버햄프턴이 1-0으로 앞서나간 가운데 부지런히 상대 진영을 누비던 황희찬이 결국 쐐기골을 책임졌다.

다니엘 포덴세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페르난도 마르사우가 골대 왼쪽에서 눈스톱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수비수를 맞고 나오자 문전에서 도사리던 황희찬이 왼발로 재차 슈팅해 데뷔골을 터뜨렸다.

황희찬은 EPL 홈페이지에서 팬 투표로 선정하는 '킹 오브 더 매치'로 뽑혔다. 62.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연합뉴스

호날두 '복귀골' 12년만의 맨유 복귀전서 2골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12년만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복귀전에서 멀티골을 폭발하며 승리를 책임졌다.

호날두는 12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끝난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선제골과 결승골을 넣어 맨유를 4-1 완승으로 인도했다.

호날두가 맨유 유니폼을 입고 득점한 것은 2009년 5월 10일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 이후 12년 124일만이다.

2008-2009시즌을 끝으로 맨유를 떠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던 호날두는 이탈리아 유벤투스를 거쳐 지난달 28일 맨유에 전격 복귀했다.

과거 포르투갈 스포르팅 유망주였던 호날두의 2003년 맨유 입단에 앞장섰으며, 이번 복귀 과정

에서도 직접 호날두와 통화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이 현장에서 애제자의 복귀전을 지켜봤다.

4-2-3-1 포메이션의 원톱으로 나선 호날두는 전반 47분 역사적인 복귀골을 터뜨렸다.

메이슨 그린우드와 때린 왼발 슈팅을 뉴캐슬 골키퍼 프레디 우드먼이 제대로 잡지 못하자 어느새 문전에 자리 잡은 호날두가 재빨리 오른발로 골대에 차 넣었다.

수비에 치중하던 뉴캐슬이 후반 11분 역습에 이은 하비에르 망키요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호날두가 멀티골을 폭발하며 다시 맨유에 리드를 안겼다.

호날두는 후반 17분 루크 쇼의 도움을 받아 골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해 골망을 흔들었다. 맨유는 후반 35분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후반 47분 제시 링가드의 연이은 골로 완승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싱크홀
2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인질
3관	인질, 싱크홀
4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5관	모가디슈
6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9관	코다, 건파우더 밀크셰이크, 죽을 때까지
7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싱크홀, 슈퍼문
8관	씨네커풀 인질, 좋은 사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서사무엘 UNITY
일시 : 2021. 09. 14.(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11시 음악산책 6
김가온의 Thanksgiving Day
일시 : 2021. 09. 24.(금)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즐거움
문화산책